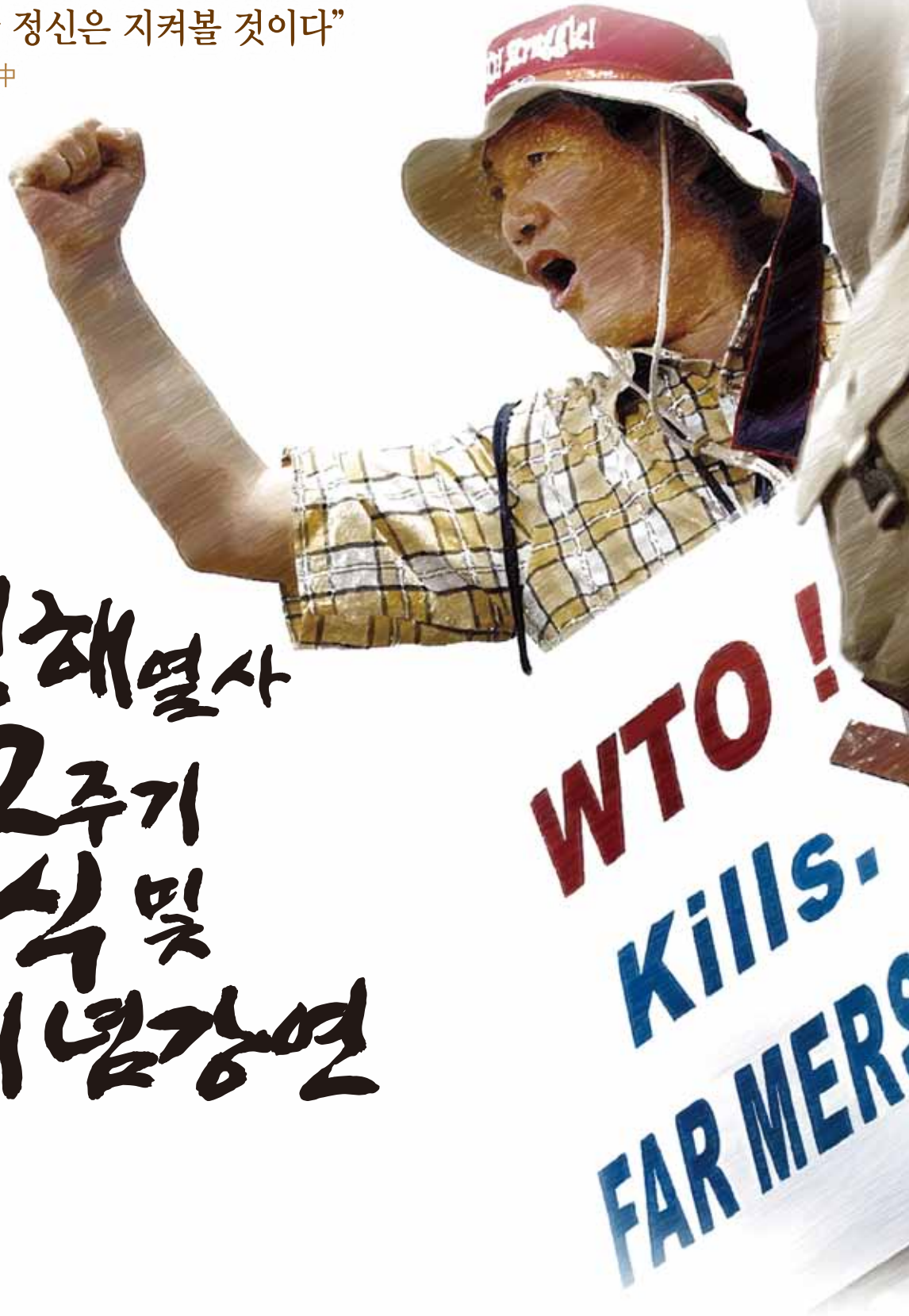


“WTO Kills Farmers”

세계화에 희생된 뛰어난 농민 이경해

“몸은 먼저 가지만 정신은 지켜볼 것이다”

- 이경해열사 마지막 유언 中



이경해열사
12주기
추모식 및
기념강연

2015년 9월 11일(금)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813번지 한국농업연수원
(신주소 : 발방골길 72)

식 순

11:50	접수 및 등록	한국농업연수원
12:00	점심식사	한국농업연수원 내 식당
13:00	추모기념강연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이사장
14:00	이경해열사 12주기 추모식, 개회사, 국민의례, 묵념	
14:10	약력보고	
14:15	추모시 낭송	
14:20	추모사	
14:45	추모영상시청	
14:50	헌화 및 분향	
15:00	추모걷기대회 및 묘역참배	

추모사



김진필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WTO 협상에서 농업을 제외하라!” 외치시며 자결로써 저항하셨던 이경해 열사께서 떠나신지 올해로 12년째가 됩니다. 열사께서 자결을 시도하신 직후 구급차로 옮겨 병원으로 이송하던 과정은 물론, “내 걱정은 말고 열심히 투쟁하라”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임종하시던 순간까지 함께 했던 저는, 그날의 각별했던 기억들을 생생히 떠올리며 농권운동에 대한 스스로의 자세를 새로이 다잡게 됩니다.

흔히들 “세계화에 희생된 뛰어난 농사꾼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경해 열사님은 신명을 다 바쳐 농사를 짓고, 후진 양성에 힘쓰셨으며, 한농연을 탄생시키고 농권운동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셨던 분입니다. 불의와 부당함이 판치던 곳, 치열했던 농권운동의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열사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돈보이고 인정받는 자리보다는, 보이지 않는 구석진 자리로 가서서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하게 두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면서 저를 비롯한 후배들을 격려해주시고 든든히 지켜 주셨던 열사님의 모습을 여기 모인 우리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농산물 수출 강대국과 국제 곡물메이저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WTO 체제의 부당성을 온 몸을 던져 고발하셨던 열사님의 희생은, 한-중 FTA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등 농업 완전개방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 소중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사님의 12주기 추모식을 통해, 열사께서 꿈꾸며 저항하셨던 농업·농촌의 미래와 농민상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열사께서 몸을 던져 실천하셨던 “싸우며 건설하는, 깨어있는 농민의 삶”의 정신을 올곧이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갑시다.

이경해 열사님! 우리 모두의 가슴 속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다시 살아나소서!

추모사



유제관

(사)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 회장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회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계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위해 농민운동가로서, 정치가로서, 언론가로서 반평생을 봉사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이경해 열사님의 뜻을 기리고, 추모의 정신을 함께하고자 모였습니다.

지난 2003년 추석, 이역만리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세계농민 다 죽인다!'라며 세계 농민을 위해 산화하신 이경해 열사님!

힘없는 농민들이 웃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마치신 그 날까지 내 몸은 부서지든말든 오로지 그렇게 반평생을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 온 몸을 불사르신 열사님의 숭고한 뜻 깊이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974년 당시 서울 농업대학교였던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농부의 꿈을 품고 이곳 장수군에 서울농장을 설립하셨던 이경해 열사께서는 1982년에는 농업계 학부출신 영농후계자 100인에 선정되었고, 1987년 전라북도지역 농어민후계자들의 협의체인 전북농어민후계자 협의회장에 선출되어 본격적인 농민운동가로서의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이듬해인 1988년에는 UN산하 식량농업기구인 FAO로부터 '올해의 농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입기도 하셨습니다. 이후 1989년에는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으로, 1990년에는 한국농어민신문사 초대회장에 재임하시면서 농산물 수입개방 보완대책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으며, 1991년 전라북도 의원, 1995년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2000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고문 등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삶과 애환을 알리기 위한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셨습니다.

활발한 정치활동 속에서도 1990년 스위스 제네바 UR반대 할복 시위, 1999년 마사회 농림부환원 단식농성, 2001년 일본 도쿄총리관저 항의 단식농성이후, 2003년 멕시코칸쿤에서 WTO 제5차 각료회의에 항거하며 산화하시는 순간까지 열사께서는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농민운동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한평생을 살신성인의 자세를 실천으로서 보여주신 진정한 농업계의 정신적 지주셨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인 동지들은 열사님의 그 높은 뜻을 계승하여 21세기 행복한 농촌, 농업인들이 살맛나는 농촌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농업경영인 동지들이 더욱 힘을 합하여 농업인들의 행복한 세상 만듭시다.

다시한번 이경해 열사님의 영전에 존경과 친애를 바치면서 조직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추모사



최용득
장수군수

불꺼져가는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준 농민운동가 이경해 님의 추모 12주년을 맞이하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늘 우리는 WTO의 농산물 개방에 맞서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신 이경해 님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금 가슴속에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님의 희생은 전 세계 농민과 한국인의 피를 얼어붙게 했으며 대한민국 농토를 통곡과 오열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우리 농산물을 지키지 않고서는 농민의 운명도, 국민의 안전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타향 만 리 멕시코 칸쿤에서 온몸으로 세계농민의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신 이경해 님의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 세계열강은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민의 숨통을 죄여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잘 사는 세상!

바로 우리 농민의 꿈이자 앞서가신 이경해 님의 염원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아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농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경해님의 뜨거운 희생, 값진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추모사



오재만
장수군의회 의장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난여름 뜨거웠던 태양을 뒤로한채
고 이경해 님의 12주기를 맞이하여
열사님의 정신계승 추모대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농업인 여러분!

세계농민의 선두에서 WTO의 농산물 개방저지를 위해
평생을 농민운동에 몸 바치신 이경해 열사님의
간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는 외침은
아직도 우리곶가에 생생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 울림이야말로, 우리 농촌의 과거를 증거하며,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장수군 대성리 600고지에서 초지를 조성하고
한우를 사육하며 농업의 꿈을 실현시키며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용감한 청년 이경해님이
아직도 우리곶에 살아있음은 피폐화되어가는 농업·농촌에
간쿤에서 죽음으로, 전세계로 생명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경해 열사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님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님의 정신은 세계농민의 마음을 대변하며,
영원히 지구촌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모든 것이 개방화되는 시대에
갈수록 희망을 잃어만가는 농업·농촌은
님의 숭고한 뜻과 뜨거운 함성이 밑알이 되고
참된 희망의 불씨가 되어 다시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경해다.”라는 세계농민의 구호처럼
죽어서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불멸의 님이시여!
그 뜨거웠던 삶, 숭고한 죽음에 12주기를 맞이하여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편히 잠드소서!

이경해 열사 약력 및 주요공적

1974년 서울농업대학교 졸업(현 서울시립대학교)

1991년 서울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수료

1974년 서울농장 설립 (장수읍)

1982년 농업계학부출신 100명 영농후계자 선정

1987년 전북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

1988년 FAO '올해의 농부상' 수상

1989년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

1990년 농산물수입개방 보완대책 특별위원

한국농어민신문사 초대회장

스위스 제네바 UR반대 할복 기도

1991년 전라북도 도의원

1992년 중앙연수원 교수

민주당 제14대 대통령선거대책 중앙위원

1993년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대회 위원

1994년 한국내외문제연구회 전북 사무국장

1995년 전라북도의회 산업위원장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농어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00년 전북농민단체협의회 고문

2001년 일본 도쿄 총리관저 향의 단식농성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 앞 1인 단식농성

2003년 9월 11일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열린 멕시코 칸쿤에서 산화

추모 사진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면서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이사장

벌거 벗은 한국농업, 이경해 열사가 그림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동지이자 행동하는 스승인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고, 우리의 미래를 다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난지 열두번째 해를 맞아 우리는 다시금 이 자리에 서서 그 분을 추모하고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모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에게서 갑갑하고 절망스러운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길을 묻고 희망을 얻고자 모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농업, 농촌이 위기이고, 우리들 농업인의 처지가 더욱 풍전등화 같은 상황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해 열사의 생애는 이 나라 후계농업인의 마지막 세대일수도 있다는 한농연의 역사이고 희망이었으며, 행동하는 결출한 지도자로서 세계농민운동 역사에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표로서 추앙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농업인이라기보다 농민운동가였고 농민혁명을 꿈꾸는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말로만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몸을 던져 불의에 저항하였으며, 점점 옥조여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인 우루과이 라운드, WTO에 맞서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초개같이 던져, WTO의 부당성을 세계에 호소한 농민운동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WTO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경해 열사가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의 농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되었으며, 농업인들은 점점 옥조여오는 개방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절망감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농정에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식량을 무기화하려는 한줌도 되지 않는 다국적 국제 곡물메이저의 이익에 봉사하는 신제국주의 세력의 세계 먹거리지배 음모가 근본 뿌리인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개시될 때만하여도 우리 농업인들은 매우 순진했습니다. 테모 현장에서 “한 점 소고기도 수입할 수 없다” 한 톨의 쌀도 수입할 수 없다!” 고 절규했습니다. 우리쌀이 남아 돌아 골치인데도 쌀수입이 증가하고, 한우시장도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도 걱정하던 한.중 FTA협상이 마무리되고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농연과 함께 한 처절한 투쟁의 이경해 열사

이경해 열사의 삶의 궤적은 실패한 현대한국농정사입니다. 그는 농업에 뜻을 세우고 전주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서울산업대학교인 시립서울농업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장수 산골,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오지에서 흙벽돌로 집을 지어 풍찬노숙적 농업인의 길을 걸었다. 아마도 젓과 꿀이 흐르는 선진농업국이자 낙농대국인 덴마크 이상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룬드비히, 달가스처럼 후진적 한국농업. 농촌을 선진농업국으로 앞장서 개척하고, 우리 농민들이 행복한 삶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꿈을 갖고 농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야산을 개간하여 목초를 재배하여 낙농의 꿈을 키웠으며, 농촌청소년, 4-H지도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았습니다. 약초를 심어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산촌농업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화여대 영문과출신인 농과는 생면부지인 김백이여사와 결혼하여, 단란한 신혼 꿈을 꾸었고 슬하에 세 딸, 보람, 고운, 지혜를 둔 다복한 가장이자 남편이었습니다. 몸이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희망을 자산으로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여 농장 규모가 확대되고 경영도 점차 안정되었으며, 농장 이름을 서울농장으로 지어 활동하면서, 촉망을 받는 농촌지도자로서 1987년 UN식량농업기구인 FAO로부터 “올해의 농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경해 열사의 운명은 1982년 농업계 학부출신 100명 영농후계자로 선정되면서 달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농민지도자로서 모든 조건을 구비한 선진낙농가 목부를 꿈꾸던 이경해 농민을 농촌에서 농사에만 전념하도록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987년 전북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 1989년에는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으로 피선되면서, 그의 지도력은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 상황이 인물을 만든다고 하듯이 당시는 본격적으로 개방농정이 심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후협” 회원들의 희망이었던 이경해 회장으로써는 UR 반대, 농민권익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5만 농어민후계자 대표조직인 전후협이 투쟁의 전선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세가 조성되면서, 회장 이경해는 농민운동가, 투쟁가로서 자리매김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전후협 회원들은 물론이고 농업계의 기대와 과 함께 그의 행동하는 리더십은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이고 의협심이 뒷받침되는 신뢰의 지도력은 한국농민운동사에 커다란 업적들을 거양하게 됩니다. 아직 채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전후협을 이끌고, 1989년 8월 제1회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를 만여 명 회원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대규모 행사를 자주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회원들에 대한 배려, 신뢰, 그리고 무한한 애정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무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전후협 역사를 다시 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후협 조직, 회원들에게 자존감과 긍지, 활력을 불어넣었고, 전국 단위조직 활성화에도 기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해태기업이 자몽 수입에 나서자 해태제품 불매운동으로 대응했고,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 소장이 한 언론에 농산물시장 개방 불가피성을 미국이 인디안 보호정책을 한국농업도 보호정책으로 가야한다는 “망언”을 하자, 농민들 분노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대우제품 불매운동 중심에 전후협이 나섰던 것입니다. 대우 김우중 회장은 사과하고, 서로 협조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은 투쟁 가운데 단결되고 자라며 튼튼해진다”는 말이 실감나는 현실을 전후협 회원들이 터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주대회의 성과는 구체적으로 농업. 농촌. 농민을 대변하는 언론, 전후협과 함께하는 대변지, 한국농어민신문사 설립으로 이어졌다. 한국농어민신문이 없는 한농연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농연 발전과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해야 합니다.

개방농정의 칼날 위에 선 농업경영인

그러나 세상은 녹녹치 않았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한국농업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 태풍의 중심에 한농연 회원이 있었습니다. 농어민 목소리가 반영되는 농정운동, 농어민 생산자조직 강화운동, 농협개혁운동 등 이제 전후협은 농정운동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정세는 농민의 최대조직으로서 농정운동의 중심에서 역할하고 있는 전후협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견제하는 조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체적 사건은 “성환사건”입니다.

1990년 무주대회에 이어 전국대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당국은 갖은 감언이설로 대회개최지를 성환종축장 목초지로까지 내몰았고, 그마저도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대회가 파행되면서 회원가족들의 정부에 대한 항의는 분노로 변하였습니다. 드디어 이경해 회장은 회장직을 사퇴하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쌍방이 자제력을 발휘하여 수습되고, 사퇴서도 반려됐지만 농정 불신은 깊어만 갔습니다.

“비에 울고 박대에 울고”로 표현되는 “성환대회”의 파행은 갑작스런 폭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 무시, 농정 불신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던 정부 당국의 보이지 않는 억압이 불러 온 예견된 사태였던 것입니다.

제네바 가트에서 칸쿤까지 “할복의 그림자”

1990년 제네바 가트본부에서의 할복이라는 극한적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저항했지만, 근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네바로 출국하면서도 아내에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네바에 찾아 올 수 있겠느냐?”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네바 가트본부에서의 할복 자살기도는 미수에 그쳤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UR, 쌀개방 반대 농민투쟁의 기폭제가 되었고, 농민단체들의 연대투쟁을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키는데도 기여했던 것입니다.

이경해 회장은 도의회에 진출해서도 농권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 음모에 결연히 맞서면서, 한농연 농민투쟁에도 항상 앞장 서 투쟁을 이끌었고, 지방자치운동에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한농연 출신 지방자치위원들의 역할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는 사실 앞에 이 회장의 고뇌는 깊어가고 절망감이 그를 더욱 엄습했을 것입니다.

이경해 회장 WTO 사무국에 전달한 자필 서한에서 그의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던, 그러나 실패만을 거듭한 많은 농촌지도자중 하나다. WTO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물결이 결국 극소수강대국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UR는 몇몇 야망에 찬 정치집단들이 다국적 기업과 외눈박이 학자연하는 자들과 공조하여, 자신들의 골치 아픈 농업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긴 한판 사기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키는 이외에 어느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기를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하고 식량을 지배하면 인류를 지배한다.”는 세계 먹거리 시장지배 전략을 세운 식량 다국적 기업, 농업강대국 정부는 이를 받아드릴 수 없었고, 결국 이경해 회장은 불행히도 최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멕시코 칸쿤행을 말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념화된 반WTO에 대한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칸쿤의 날이 밝았다.

2003년 9월 11일.

이 날은 세계 70여 개 국 농민 등 NGO대표 1만여 명이 참가한

“국제 농민공동 행동의 날” 이었다.

이경해 열사는 최선봉에 섰다.

그리고 순간이었다.

“WTO가 농민을 죽인다!”

“WTO ! KILLS FARMERS”라고 외쳤다.

그리고 할복했다.

세계가 놀랐다.

역사적 멕시코 칸쿤의 WTO 제5차 각료회의는 서둘러 폐막했습니다. 현지에서 파견됐던 한국 대표단은 그를 지켜내지 못한데 대한 자괴심이 컸습니다.

이경해 열사의 장례는 “세계농민장”으로 치러지고, 유해는 국내로 봉환되어 2003년 9월 20일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마지막 영결식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사랑스런 세 딸을 뒤로 하고 고향인 장수 “한농연 성지”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경해 열사 유지 받들어, “한농연 역사 다시 쓰자!”

이제 살아 있는 자들의 몫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경해 열사의 유지를 받들고 그를 따르는 일만이 우리들에게 지워진 시대적 책무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자신을 위하는 길이며, 세계 가족농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길이며, 먹거리 정의, 식량주권을 수호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35년 전 농어민후계자 정책이 시작될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급변하는 냉엄한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농업은 황야에 내 몰려 있으며, 농민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 정책도 백방이 무효일 정도로 영세 소농들은 탈농, 이농, 이촌으로 내 몰리고 있어 위기감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의 감소,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 심화, 농어촌 복지 부문의 열악 등, 특히 농산물유통시장의 왜곡은 농어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 소득 격차, 삶의 질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농정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한농연 회원들이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은 개방농정대책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한농연 회원은 농정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책임 농정, 신뢰 농정을 바탕으로 농정의 일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농업, 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농정을 수행하도록 한농연이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한농연 역사가 30년 이상 한 세대가 경과한 만큼 설립 정체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농연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진단이 필요하고, 지도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많은 농협조합장, 지방의원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낮고, 역할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원인을 진단하고 역할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농정활동 강화를 위한 페러다임을 다시 세우고, 농어업회의소 등 거버넌스 구축에도 떨쳐나서야 할 때입니다. 생산자조직의 협동화는 농정개혁의 최대 현안과제입니다. 농협의 민주화, 조합원이 당당한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농업, 농촌은 농민만의 몫이 아닌 국민과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국민농업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농업, 농촌의 가치를, 역할을 납세자인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끊임없이 대국민 운동을 전개하는데 소홀히 않아야 합니다.

농민조직간, 단체간, 농식품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도 긴밀히 연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농정활동의 외연 확대를 도모해야 합니다.

한여농과의 역할 분담도 긴밀히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경해 열사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조직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경해열사 추모시

아프리카 초원의 메뚜기 떼처럼
깜깜하게, 캄캄하게 세계화가 물려올 때,
누가 앞장서 대지의 운명을 지켰는가?
역사의 모든 길이 어둠 속에 묻힐지라도
넋이 꽃은 칼칼 자루 녹슬지 않으리니
세계 농민들의 이정표로 빛나라.
이제 하늘 아래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된 여기!
밤마다 달빛이 찾아올 것을 우리는 믿노라.
바람도 구름도 지나갈 때마다 웃어라.
지상의 모든 농민의 넋, 이경해!

민족문학작가회

정도상

주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관 /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장수군연합회

